

광양시 '푸른 광양 만들기' 선포...나무심기 '한창'

58개 기관·단체 참여...지속가능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읍면동 소규모 마을 '감동정원' 만들기 등 탄소중립 실천

광양시가 탄소중립 실천에 실질적인 성과를 달성하고 명품 녹색도시 조성을 위해 푸른 광양 만들기 선포식과 나무심고 가꾸기 실천 운동을 추진한다. 24일 광양시에 따르면 최근 육룡면 백계산 동백정원 일원에서 58개 기관·단체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푸른 광양 만들기' 범시민운동 선포식과 함께 나무심기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선포식은 숲의 공익적 가치와 일상 속 나무심기 실천의 소중함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생활 속 녹색 공간 확충을 통해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고자 마련됐다. 선언문에서는 미래세대의 생존과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생활 속 작은 실천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노력을 하고,

푸른 숲과 꽃이 어우러진 녹색공간을 확충해 지속가능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자는 내용이 담겼다. 또 녹색공간 가꾸기 활동을 통해 탄소중립을 선도하는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공감대 확산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이날 선포식에는 '푸른 광양 만들기, 지금! 바로! 나부터'를 외치며 탄소중립 녹색도시 실현을 '지금 바로 나부터 시작한다'는 구호 아래 나무 심기와 나뭇잎 달기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퍼포먼스는 '푸른 광양 만들기' 범시민운동을 통해 자연환경을 지키고 광양시 전역을 녹색도시로 가꾸 미래세대에게 물려주고 선도한다는 의미를 담았다. 이와 함께 시장 관사 철거를 앞두고



광양시가 최근 육룡면 백계산 동백정원 일원에서 '푸른 광양 만들기' 범시민 운동 선포식을 열고 나무심기 행사를 진행했다. <광양시 제공>

관사 마당에 식재된 동백나무(46년생 추정, 1983년 관사 건축 당시 식재)를 이

식하는 기념 식수가 이뤄졌다. 01루의 동백나무를 심고 비료 주기 활

등을 실시해 탄소중립 실천에 앞장섰

다. 아울러 각 읍면동에서도 소규모 마을 감동정원 만들기 행사가 진행돼 광양시 전역에서 시민들이 참여한 나무심기 행사가 이뤄졌다. 시는 범시민운동 활성화를 위해 가정의 달 5월에는 도심권 공원 내 '시민 감동정원 만들기'를 꾸준히 이어가고, 시민 참여가 지속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기반 조성하고 장비 임차비 등을 시에서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정인화 시장은 "푸른 광양 만들기 범시민운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이번 행사를 시작으로 한 마음 한뜻으로 모인 노력이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단절된 도시숲을 연결해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명품 녹색도시가 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밝혔다. 한편, 광양시는 지난 2월 28일 '푸른 광양 만들기' 범시민운동 일환으로 66개 기관·단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광양=양홍철 기자

여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위기 청소년 지원 '총력'

청소년복지실무특수구성
맞춤형 지원책 발굴 집중

여수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이하 센터)가 지역 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24일 센터에 따르면 여수시는 위기 청소년에게 가정·학교·지역사회의 통합적인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해 지난 2000년 개소, 현재 여수 YWCA가 위탁 운영 중이며 19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특히 청소년 관련 전문가 22명으로 꾸려진 청소년복지실무위원회를 구성하고 위기 청소년 조기 발견과 지역자원 연계 등 실질적 종합서비스 지원을 하고 있다. 현재 국비를 포함해 6억여 원을 지원 중이다. 올해는 고립·은둔, 위기 청소년 지원에 중점을 둔 ▲청소년상담 1388 ▲찾



아가는 청소년 위기 예방교육 ▲청소년 부모 교육 ▲인터넷·스마트 폰 과의존 및 사이버 도박 문제 상담 치료 ▲고위험 청소년 집중심리리뷰 운영 ▲학교 밖 청소년 검정고시 학습반 운영 ▲맞춤형 진로진학 컨설팅 ▲꿈드림 청소년단 운영 등을 기획하고 있다. 관련 문의는 061-663-2000 또는 국동임시별관 1층(신월로 648)에 위치한 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조영화 여성가족과 과장은 "센터는 모든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책 발굴에 힘쓰고 있다"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들은 주저하지 말고 언제든지 센터의 문을 두드려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지난해 센터 운영 실적은 학교밖 청소년들이 검정고시 교육에 117명이 참여, 53명이 합격했다. 찾아가는 위기 청소년 예방교육은 12개 학교에 1천400여명이 참여했으며, 인터넷·스마트 폰 과의존 예방 교육에도 288명의 학생이 상담치료를 받은 바 있다. /여수=김진선 기자

군민 숙원 '고흥군립하늘공원 조성사업' 첫 삽 총사업비 198억 투입...내년 6월 준공 목표

고흥군이 군민의 오랜 숙원 사업 중 하나였던 '고흥군립하늘공원 조성사업'의 첫 삽을 떴다. 24일 고흥군에 따르면 지난 22일 공영민 군수와 이재학 군의회 의장, 도의원, 군의원, 황인수 대한노인회 지회장 등을 비롯한 16개 읍·면 분회장과 이장단장, 주요 기관단체장, 마을주민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착공식을 개최했다. (사진)

하늘공원 조성사업을 최종 확정 지어 같은해 11월 행정절차를 마무리했다. 총사업비 198억원(국비 35, 도비 4, 군비 159)을 투입해 5만7천679㎡ 규모로 봉안당 8천500기, 자연장지 1천883기, 유족동산, 주차장 등 편의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봉안당은 2층 규모로 추모실과 사비추모관, 사무실, 봉안실 등 연면적 2천943㎡과 잔디형 자연장지는 면적 3천

47㎡에 조성되며 2025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이용 대상·이용료는 하반기 '고흥군립하늘공원 조례' 개정을 거쳐 결정될 예정이며, 적절한 이용료 산정을 통해 타 지역 추모 공원을 이용해야 하는 불편함과 이용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고흥군민의 염원을 담아 추진 중인 고흥군립하늘공원 조성사업은 장사 문화에 대한 군민들의 욕구를 충족하고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묘지관리 불편 해소 등 장묘문화 개선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흥=최복환 기자



담양군, 치매 조기 검진 '호응'

찾아가는 검진 병행·맞춤형 서비스 제공

담양군이 치매 환자의 조기 발견과 치료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치매 조기 검진사업이 호응을 얻고 있다. 24일 담양군에 따르면 최근 검진 사각지대에 있는 대상자와 고위험군의 적극적인 발굴을 위해 치매 조기 검진 안내문을 60세 이상 7천600가구에 우편 발송했다. 특히 올해는 치매안심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된 만 65세 이상 대상자 중 1년 이상 검사를 받지 않은 주민에게 전화로 치매 조기 검진을 안내하고 있으며, 찾아가는 검진(사진도 병행)하고 있다.

치매는 조기에 발견할 시 치료를 통해 중증 상태로의 진행을 억제하고 증상을 개선할 수 있는 질병이다. 경도인 지장애, 만 75세 이상, 독거노인은 치매 고위험군으로 1년에 한 번 정기적으로 치매 선별검사를 받을 것을 권고하고 있다. 최근 기억력이 저하되는 등 치매가 걱정되는 주민은 누구나 신분증을 지참 후 치매안심센터나 보건지소(진료소)에 방문하면 무료로 치매 조기 검진을 받을 수 있다. 담양군은 지난해 만 60세 이상 어르



신 6천700명을 검사했으며, 176명에게 치료를 연계했다. 치매 진단을 받은 어르신은 돌봄에 필요한 조호물품과 치료비, 실종 예방 배회감지기, 쉼터와 가족 교실 등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담양=정승균 기자

'보성다향대축제' 준비 돌입

보성군 기본계획보고회서 세부사항 검토

보성군 '최근 보성다향대축제'의 기본계획 보고회를 개최하고, 체류관광 광 기반 조성을 통한 성공적인 축제 만들기 위해 본격적인 행보에 돌입한다"고 24일 밝혔다. 제47회 보성다향대축제는 오는 5월3-7일 5일간 한국문화공원 일원에서 차의 도시 보성의 풍부한 문화와 고유한 전통

을 보존하고 그 가치를 대내외적으로 알리기 위해 '전년 차(茶)의 유혹, 보성의 매력'을 알릴 수 있는 참여형 프로그램 운영 방침, 차를 주제로 하는 프로그램 확대 등을 비롯해 안전하고 즐거운 축제를 위한 체계적인 재해대처 및 안전 관리 대책, 안전 관리 인력의 확보 및 배치 계획에 관한 사항 등을 면밀히 검토했다. /보성=임병연 기자

장성군 '냉동김밥' 세계시장 공략 나선다

20억 투입... ㈜현대푸드시스템 필요 설비 지원

장성군이 황룡면 소재 식품제조기업(주)현대푸드시스템과 손잡고 냉동식품 해외 수출시장 선전에 나선다. 24일 장성군에 따르면 올해 '전남도 냉동김밥 생산 및 상품화 시설' 공모사업에 선정돼 사업비 20억원을 투입했으며, (주)현대푸드시스템에 필요 설비 등을 지원한다. (주)현대푸드시스템은 전남 유일 냉동

식품 수출역량을 갖춘 즉석식품 제조업체로 이 회사는 2013년 창업해 충청, 영·호남 지역 편의점 등 1만여개 매장에 도시락, 김밥, 삼각김밥, 햄버거 등을 공급하고 있다. 군은 미국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는 냉동김밥의 상품성을 강화해 북미·유럽 시장 공략에 나설 방침이다. 냉동식품의 식재료로 들어가는 쌀, 채소 등은

장성한 농산물을 사용한다. 또한 수출 확장을 통해 김밥을 비롯한 잡채, 유부초밥 등 다양한 냉동 간편식 수출확장을 계획 중이다. 세계시장에서 간편식의 비중이 확대되는 추세인 만큼 한국 음식에 대한 외국인의 선호도가 높아 긍정적인 것으로 전망된다. 김한중 군수는 "이번 사업은 장성 먹거리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농가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성=김명태 기자

"곡성에 소아과를 선물해주세요"

那 郡 高 尚 人 員 志 愿 者 1 号 事 业 报 告

곡성군은 24일 "곡성에 소아과를 선물해주세요"를 고향사랑 지정기부 1호 사업으로 정하고, 기부금 모금을 위해 지난 1월부터 다양한 온·오프라인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밝혔다. 군은 최근 전남대어린이병원에서 '찾아가는 고향사랑기부 팝업스토어'를 운영해 소아과 지정기부 사업을 홍보했다. 지정기부사업에 공감한 전남대병원의 협조로 진행됐으며, 병원을 오가는 아기와 부모, 의료진의 관심을 이끌어냈다. (사진) 고향사랑기부 추천자에게 혜택을 제



공하는 '곡성진추' 이벤트도 운영 중이다. 곡성군에 고향사랑기부를 하도록 추천하고 추천받은 사람이 실제 기부를 하면 추천한 사람에게 기부금의 10%를 지급하는 것으로, 곡성군청 홈페이지에

이지 또는 카카오톡 곡성군청 채널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곡성군 관계자는 "고향사랑기부에 많은 관심을 바라며, 특히 '소아과를 선물해주세요' 지정기부사업은 곡성에 꼭 필요한 사업으로, 목표액인 8천만원을 달성해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곡성에 소아과를 선물해주세요' 고향사랑 지정기부사업은 지역에 소아청소년과 의료기관이 없어 아기가 아플 때면 인근 대도시 병원을 찾아가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의료서비스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 사업을 통해 곡성군민들은 주 2회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방문 진료와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곡성=김영필 기자